광주 전역을 자전거 타고 안전하게

시, 교통 분담률 5% 목표 총 410억 들여 자전거 도시 조성
보관대·정비시설 등 마련 … 대중교통 연계 편의시설 확충

자전거를 타고 좀 더 안전하게 광주 전역을 누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향후 5년 동안 매년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와 지역환경단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 5%를 목표로 총 418억을 들여 자전거와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먼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도심 속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총 126.01㎞에 달하는 63개의 자전거 도로의 노면을 재포장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단절된 59개 노선을 재정비한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자전거 통학로 확보에 나선다. '안전한 자전거 통학로'는 자동차 도로의 폭을 줄이고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과 차량속도 제한으로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도울 예정이다.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도 늘어난다.

그간 자전거 이용자들은 하남에서 상무지구로 진입할 수 없어 극락교를 우회해야 했다. 이에 어등대교 하부에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도 검토 중이다. 자전거로는 이동하기 불편했던 첨단과 수완지구 사이를 잇는 자전거 도로가 신설되며, 자전거를 타고 임방울대로를 건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늘어난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연계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확충된다.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정비시설, 공기주입기를 마련하고 지하철역과 다세대주택단지 사이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인 공공자전거를 이용해 지하철·시내버스로 환승하면, 탑승요금을 할인하거나 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을 주는 아이디어도 고려중이다. 자전거를 구매하지 않아도 빌려 탈 수 있는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19년 서구 상무지구 내 시범적으로 설치된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동·남·북·광산구청, 송정역·평동역·문화전당역·광주역·효천역, 조선대·광주대·교육대·호남대 등 12개 소에 추가 구축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광주천 등 천변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천변도로 안전성 확보도 이뤄진다. 야간 주행 시, 빛을 반사시켜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표지병과 시선유도등을 설치한다. 또 태양광을 활용한 LED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다양한 교육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를 중·고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안전점검법과 안전장비 착용법, 자전거 수신호 등 자전거 관련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후쿠시마 올림픽 시설 인근 방사선량 원전사고 이전의 1700배 넘는다

그린피스 조사 결과 공개

작년에 가을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에서 방사성 오염 제거 작업이 끝난 광범위한 지역이 재오염됐다는 국제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올해 여름 도쿄올림픽에 활용될 시설 인근의 방사선량은 원전 사고 전 후쿠시마의 평균 방사선량의 1700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피스저팬(이하 그린피스)은 지난 9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10월 16일~11월 5일까지 후쿠시마(福島)현 일대의 방사선량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린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10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휩쓸고 간 후 후쿠시마 일대를 조사한 결과 방사선량이 주변 평균보다 몇 배 높은 '핫스폿'이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어 피난 지시가 해제된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浪江町)의 폐교된 한 초등학교 주변의 경우 도로를 따라 진흙이 묻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이 쌓인 곳이 많았는데 이런 장소가 핫스폿이 됐다고 그린피스는 평가했다.

그린피스는 "큰비에 의해 숲에서 방사능을 포함한 진흙이 붙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가 운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여름 예정된 도쿄올림픽 관련 시설 인근의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20㎞ 거리에 있는 J빌리지 일대에서도 핫스폿이 확인됐다.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지표면에서 방사선량이 71㎲에 달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원전사고 전 후쿠시마현의 방사선량을 보여주는 지표인 '백그라운드치'는 0.04㎲였다. 단순 비교하면 J빌리지 인근 핫스폿의 지표면 방사선량은 이 백그라운드치의 1775배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린피스 측은 이 정도의 방사선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위험이 제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아울러 핫스폿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무엇인지, 사람이 해당 장소에 계속 머무는지, 기상 현상 등의 영향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동하는지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단순 비교하거나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조건을 달았다.

/연합뉴스

통합돌봄대상자 발굴 조사
의료·식사 등 재가 서비스
광주시 서구

광주시 서구는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통합돌봄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2월부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18개 전담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돌봄상태를 조사하고,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지역기관과 협력해 의료·돌봄·식사·이동·주거 지원 등 재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구는 또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문상담을 전화상담으로 전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즉시 방문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취약계층 위한 마스크 4000장 제작

광주시 서구 서창동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 서창동 보장협의체 회원들은 마스크 4000장을 만들어 취약계층 400세대에 배부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청 제공〉

광주시 동구, 음식물폐기물 감소 사업 추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설치
감량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주민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광주 동구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 286g, 한해 104㎏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동구가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에 발벗고 나섰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 다량배출 사업소 및 집단 급식소, 소형음식점 등에 음식물 폐기물 감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동구에서는 연간 1만t(광주시 전체 발생량의 5.5%수준)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 2018년(인구 9만 4475명)에는 1만 168t, 지난해(인구수 9만 8585명)에는 1만 283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1년에 104.3㎏을 배출했다.

이에 동구는 시비 7600만원과 구비 4900만원을 들여 음식물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시행한다.

주요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RFID)설치 지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지원 ▲주민 인식개선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캠페인 등이다.

1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60세대당 1대)에는 4000만원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약 20대를 설치하고, 공동주택·사회복지시설·다량배출사업장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2대를 배치한다.

기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29곳 가운데 올 한해 지난해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골라 5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분리 배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새를 살리는 작은 점 …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붙여요"
환경부, 지원사업 공모

환경부는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총 10곳을 선정한다. 조류충돌 관련 민원 또는 피해 사례가 많거나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곳을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 '5×10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다.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

접수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공지문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2차례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말에 대상기관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